

산후 우울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에 미치는 영향 : 자녀 출생순위에 따른 다집단분석

박 새 림(서울대 박사수료) · 박 혜 준(서울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만 0~2세의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이 어떠 한지 살펴보고, 어머니의 산후우울 수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시간에 따른 변화 궤적에 차이가 나타나 는지 알아보고, 산후우울 수준이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영향이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규명해봄으로써,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중재와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한국아동패널조사에 응답한 어머니 2,150명(1차년도 기준)이며, 양 육스트레스의 변화 궤적을 살펴보기 위해 1~3차년도(2008~2010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척도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를 기초로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 레스’ 10문항(3차년도는 11문항)이었다. 어머니의 산후우울 수준 척도는 6문항으로 구성된 Kessler의 우 울 척도 간편형(Kessler et al., 2002)이며, 출산 후 4개월 시점에서 면접조사를 통해 측정되었다. 자료 분 석은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도출하여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 며, 자녀가 만 0세 때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던 어머니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천천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와 변화율에는 개인차가 존재 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어머니가 경험한 산후우울 수준(정상/경도 이상)은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궤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우울 수준이 경도 이상인 어머니는 정상인 어머니에 비해 출산 직후부터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았으며,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증가하였다. 셋째, 산후우울 수준은 자녀의 출생순위(첫째/둘째 이하)와 관계없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변화 궤적에 동일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우울 수준을 통제하였을 때, 자녀가 첫째인 경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초기치는 자녀가 둘째 이하인 어머니에 비해 더 낮았지 만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스트레스도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가 둘째 이하인 경우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는 더 높았으나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 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 우울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정상인 어머니에 비해 비교적 천천히 증가하지만, 초 기부터 높은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지속되기 때문에 출산 직후뿐만 아니라 영아기 동안 자녀의 성장 발 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어머니가 경험하는 산후우울에 대하 여 가족 및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둘째 이하인 경우와는 달리 어머니의 초기 양육스트레스는 더 낮았지만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또한 점차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양육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 및 노동의 투입량이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이 처음 경험하게 되는 부모역할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가 양육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첫 자녀의 성장과 함께 새롭게 직면하게 되는 다면적인 부모 역할 적응을 위한 교육적 지원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